

16/07/17(주) 주일예배 / 제목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마 5:10) p.5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팔복의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팔복 중에서 최상의 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핍박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핍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핍박 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복 중의 최상의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수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팔복 전체의 흐름을 보면 여덟 번째의 복이 최상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자의 영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 온유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의로움이 전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팔복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이미 하나님께 다가간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자기 마음을 청결히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게다가 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박해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부분의 일곱 가지는 크게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웬만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박해를 받는 일은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령한 은사가 임해서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것도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최상의 경지에 이른 것은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견디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박해를 견디는 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11절과 12절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용법을 사용합니다. 팔복 중에 앞에서 나오는 일곱 가지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단 한절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 복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도저히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될뿐더러 수용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아무리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박해를 받을 때에는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박해를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씀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박해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골 1: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박해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실 때 온전히 다 당하셨으며 조금도 남겨 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길러 나가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20:22 참조). 이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또한 구원 역사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달게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선목사**(1888-1951)입니다. 그분은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잡혀가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고문은 잔인하여 말로 다 형용하기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은 주님을 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견디기 힘든 끔찍한 고문입니다.

이러한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고문을 행한 후에 형사는 “잘 생각해 보고 마음을 돌이키라” 고 주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주 목사님은 “백 번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요. 참신은 하나님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몽둥이가 사정없이 날아듭니다. 결국 주 목사는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았고 사방은 조용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이 시련을 이기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우연히 시멘트 바닥을 만져보니 추운 겨울 물로 젖은 시멘트 바닥이 불 땀 온돌방처럼 따뜻하였습니다. 그의 온몸은 포근한 담요에 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이 사르르 저절로 감겨 그는 깊은 잠에 잠겼습니다. 주 목사는 후에 이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근한 담요는 우리 주님 자신이었어요. 나는 주의 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과 같이 고난 받는 자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2.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싼다싱**(1893~1929?)이 밀림지대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 군대의 연대장이 싼다싱의 활동보고를 듣고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지만 순종하지를 않자 나중에는 돼지우리 같은 지저분한 곳에 옷을 다 벗긴 싼다싱을 가두고 그곳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 대장은 밤새 지독한 모기들에게 뜯겨서 싼다싱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돼지우리에 갇힌 이 성자는 밤새도록 찬송을 기쁜 소리로 불렀습니다. 연대장이 이것을 보고는 감동하여 예수가 누구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고통 중에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예수를 믿어 보겠다하여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기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요16:33)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을 담대하게 지켜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목적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때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물러서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딤후 2: 10-12). 한국 교회사에서 대동강의 **포수목사**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철목사** 공산치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손익목사** 등 의롭게 살던 분들의 길은 그야말로 고난과 수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길에서 고난과 수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의 길이 비록 고난과 수난의 길이지만 이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결국은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절을 따라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이 비록 고난과 수난으로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의 길입니다. 고난과 수난을 통해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을 확고히 해줍니다. 의인의 길은 승리입니다.

3.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필립 쉘프(P. Schaff)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립의 최후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형자들은 그를 채찍으로 몹시 때렸으며 마침내 불태웠습니다. 신체의 극히 내부에 있는 내장까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처형자들은 미처 타지 못했던 신체를 창 끝에 걸어 놓고 야수의 밥으로 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화형에 처하기 직전에 ‘내가 만약 로마의 시저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지금까지의 이 박해를 그만두고 특별히 대우하겠다’라는 제안 앞에 폴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년간 나를 해침이 없이 나에게 성실하셨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이 나에게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나는 그를 사랑하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립이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해 받는 자는 하늘에서도 상이 큼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박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박해를 통해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그 박해를 통해 이 땅위에서의 삶만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핍박 속에 있다할지라도 미래의 큰 상급을 바라보는 여기에 참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는 (딤후 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으며 신약시대의 의인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목 베임을 당했고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와 사도 바울 등 많은 사람들도 의롭게 살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고 매 맞는 등 모진 고난을 받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도 신앙성경 이후의 시대인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부들과 중세의 종교개혁자들도 의로운 길을 걸다가 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박해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롬 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둘 것은 ‘핍박’과 ‘처벌’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벧전 2: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처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옳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은 핍박입니다. 의를 위한 행동과 결단 때문에 받는 핍박은 자신의 옳음과 진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핍박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불의하고 악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요 15:18-19)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음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카타콤 시대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부터 콘스탄틴 황제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동안은 엄청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내의 카타콤베 유적을 보면 수 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하 동굴에서 200만 명에서 700만 명에 이르는 무덤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묘비명이 확인 된 것만 해도 4000 개가 넘습니다. 그들은 무려 300여년을 대대로 지하 동굴에 살면서 박해를 견디었습니다. 각 황제 별로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로(NERO) 황제(AD.64)는 광적인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로마를 다시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원성이 높아지자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동물 가죽을 씌워 개에게 물려 죽게 하고, 들짐승에게 내렸습니다. 네로의 정원에는 화형틀을 세우고 성도들이 타 죽는 불빛으로 정원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 밤중에 벗은 몸으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DOMITIAN) 황제(AD.95)는 로마와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수 천 명을 처형했습니다. 황제의 사촌과 그의 아내를 처형했고, 사도 요한을 밧오섬에 유배시켰습니다. TRAJAN 황제(AD.98-117)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불법 종교나, 은밀한 비밀 결사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색출하지는 않았어도 고발하면 처벌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인 시몬(에루살렘 감독)이 그에게 처형당했습니다(AD.107). HADRIAN 황제(AD.117-138)는 박해를 다소 늦췄지만 그래도 그에 의해서 로마의 목회자 TELEPHORUS와 다수 신자들이 순교 당했습니다. MARCUS AURELIUS 황제(AD.161-180)는 賢君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박해자였습니다. 수 천 명을 참수했고, 야수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JUSTIN MARTYR가 그에 의해 순교 당했습니다.

SEPTIMIUS SEVERUS 황제(AD.193-211) 시대에는 주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매일 화형, 십자가형, 참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때에 ORIGEN의 부인 LEONIDAS가 순교하고, 카르타고에서는 귀족 PERPETUA와 그녀의 노예 FLICITAS가 짐승에게 갈갈이 찢겨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박해자는 DOCLETIAN 황제(AD.284-305)였습니다. 그는 가장 혹독한 박해자로서 그리스도인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동굴과 숲에서 사냥을 당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불에 태워지고, 짐승 밥이 되고, 갖가지 고통 받았습니다.

핍박 당한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 두 사도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참수형이나 각종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음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박해란 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의 박해는 훨씬 은밀하고

내면적이고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 전체가 다 반기독교적(反基督教的)입니다.

무신론 철학이 반기독교적입니다. 다원주의 사상과 학문이 반기독교적입니다. 현대 과학이 반기독교적입니다. 특히 돈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가 반기독교적입니다. 소설, 음악, 미술, 영화, 각종 예술이 반기독교적입니다. 상업주의 광고주들이 지배하는 언론 방송 매체가 반기독교적입니다.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모든 메시지와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륜이 미화되고 심지어는 살인, 강도, 폭력도 미화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라면 어떤 수단도 괜찮다는 목적 지상주의가 당연시됩니다. 회사에서 성경을 얘기하면 자칫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세워 놓았던 십계명 돌판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주의자들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모든 언어들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옛날의 박해는 신체적인 박해였지만, 오늘의 박해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입니다. 이런 세상 분위기에서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저항을 받습니다.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왕따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승진의 불이익, 영업의 불이익, 사회 활동의 불이익, 인간관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대적인 박해를 견디는 일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보장됩니다. 첫째는 천국의 보장입니다.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된 천국은 의를 위해 박해 받는 것으로 보장됩니다. 둘째는 하늘의 상급, 곧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비록 지상에서 큰 박해를 당했다 해도,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박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온갖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축되지는 마십시오. 참 신앙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고난 받을 각오를 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박해가 힘들지만 복이 있고 상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달게 받으시다.

요약정리 /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박해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